

신문·잡지에 나타난 근대 정원담론에 관한 연구

이휘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전공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신문과 잡지에서 등장하는 '정원(庭園)' 담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개항 이후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의 주거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도시에 인구가 폭증하면서 고밀 주거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도시화와 맞물려 2층 한옥이나 도시형 한옥 및 문화주택 등 다양한 건축유형이 등장하였다(전봉희 외, 2012). 이러한 변화가 주택정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예상하여 당시 인쇄 매체에 사용된 '정원'이라는 용어를 추적하여 당대 정원의 쓰임새와 인식, 기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우리가정』, 『신가정』, 『女性』, 『家庭之友』, 『朝光』, 『동아일보』 등 신문·잡지에 제시된 정원 담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기는 신문과 잡지의 발행이 매우 활발해지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로 한정하였다. 연구에서 '정원'이라는 용어를 중점적으로 고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원은 미관이나 위락, 실용을 위해 집 주위에 특별히 조성한 공간을 뜻하는데, 19세기 말부터 일본인이 사용하여 보편화한 단어이다(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2013).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원림(園林), 임원(林園) 혹은 마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20세기에 발간된 신문·잡지에서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이를 대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정원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II. 근대정원의 기능

1.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정원

일제강점기에 도시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례로 1915년도 당시 서울부(府) 인구가 약 24만 명인데 반해, 1944년에는 약 99만에 달하였다(이정섭, 2017). 서울뿐만 아니라, 평양, 부산, 대구, 인천, 개성 등에서도 인구 밀집 현상(동아일보, 1938. 11. 10.)이 벌어졌으며, 도시에는 고밀 주거단지(동아일보, 1938. 09. 18.)가 형성된다. 다닥다닥 붙은 지붕들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어지자 자발적으로 빈 땅(空地)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다. 실제로 당시 건축가들은 주택이란 지면에 건축물과 정원을 포함

한 것이며, 건물만 있고 정원이 없다면 이것은 완전한 주거라고 할 수 없고 주거로서 가치가 없다(『朝光』, 1935. 10월호)고 지적했다. 또한, 「전원도시론」을 주창한 하위드의 말을 빌려 집마다 공지를 제공한 경우, 정원이 없는 주거지에 비해 거주자의 사망률이 감소하였다(『朝光』, 1935. 10월호)고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한 잡지에서는 '소규모의 정원을 가지자'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도시민들은 신경이 폭발될듯한 도시 속에서 호흡하고 있기에 잠깐이라도 마비된 신경을 쉬어보려고 하니, 도시 생활에서 평화로운 전원을 한 토막만이라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야겠다(『신가정』, 1935. 5월호)고 하였다. 이러한 글을 통해 도시에서 정원은 고밀 주거 속에 조금이나마 빈 땅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겼음을 알 수 있다. 공지로서의 정원은 공원이나 녹지를 충분히 계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능이었다.

2. 도시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정원

도시의 비위생적 환경 때문에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주거 위생 담론이 제기되었다. 위생과 관련된 담론은 변수의 위치변경, 천정의 높이 조절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정원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정원 위생 담론에서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호흡기 전염병인 폐병을 예방하기 위한 환기 기능이었다. 폐병은 일제강점기에 최대 난치병이자 흔한 병이었는데, 다른 질병과 달리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발병하였기 때문에 더욱 공포심이 극대화 되었다(김미정, 2009). 20대 젊은이가 폐병에 걸린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기사(동아일보, 1935. 06. 03.)가 늘 신문지면에 등장했다. 이처럼 공포스러운 병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확보하고, 해가 들어오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곧 정원 위생 담론으로 연결된다. 정원 위생 담론에서는 주로 정원을 통해 얻는 공기청정에 대해 역설(『朝光』, 1935. 10월호)하였으며, 정원의 위치선정을 통해 전염병을 방지하려 노력하였다.

3. 꾸미기 위한 정원

근대정원에서 강조되었던 기능 중 하나는 꾸미기의 기능이다. 꾸밈을 강조한 정원은 대개 여유가 있는 주택에서 볼 수 있다.

이효석이 조광에 연재한 장편소설 화분(『朝光』, 1939)의 첫 장면을 보면 삼십평의 뜰 안에 온갖 나무와 화초가 있는 정원을 상세하게 묘사하며, 등장인물이 부유층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마찬가지로 '가정태평기(『女性』, 1938. 3~11월호)'라는 연속물에서는 이상적인 주택모형을 소개하는데, 대개 의사나 교수 등의 집이며, 푸르른 초목이 우거진 정원이 있다. 이처럼 정원을 가꾸는 것이 부유층을 대표하는 감각으로 떠오르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조원(造園)의 취미가 성행하였다. 한 잡지에서는 가정의 격을 높이기 위하여 정원을 꾸며 집을 운치 있게 할 것(『우리가정』, 1936. 10월호)을 강조하였다. 봄에는 봄이 되었으니 우리 집 뜰에도 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는 화초를 심자는 기사(동아일보, 1935. 3. 21.)가 등장하기도 한다. 1930년대 중반에는 경성에 조선유일 원예전수학원(園藝專修學園)이 개원한다. 이때 원예는 소면적의 토지에서 식물과 기타 자연물을 재료로 하여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는 것(동아일보, 1934. 3. 2.)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산층들의 이상적인 생활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재래식 주택개량을 위한 정원

이 시기에 정원은 재래식 주거를 개량하는 '주택개량'의 일환으로서 논의되었다. 재래식 주거는 1920~1940년대의 조선집을 의미하는데, 당시 한옥은 일반적인 주거임에도 사라져야 할 것으로 간주해 신식주택으로 개량하고자 했다(전봉희 외, 2012). 가장 자주 등장한 문제는 재래식 안마당에 장독대만 둘 뿐 수목을 심어 꾸미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것(『신가정』, 1934. 7월호)이다. 재래식 마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다음 글에서도 드러나는데, '대체로 일정한 집터에 집을 지을 때에 마당을 가운데에 두고 집을 그 주위로 돌려 짓는 재래 주거는 그 가운데 있는 뜰

이 뜰답지 못하고, 각 부분을 연결하는 통로밖에 되지 못할 뿐(『신가정』, 1936)'이라고 지적하였다. 1939년 개최된 가정부인 좌담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논의(『女性』, 1938. 11월호)되었으며, 재래 주거의 마당에서 장독을 없애자는 주장(『女性』, 1938. 2월호)도 함께 제기되었다. 혹은 재래 주거에서 문간채 주변의 살림살이나 변소 등 미관상으로 좋지 않은 곳은 화분이나 화단을 가꾸어 차폐(『家庭之友』, 1940. 5월호)하고자 하였다. 당시 재래식 주거는 구태의연한 것이라 여겼고, 그 과정에서 '꾸미지 않은 안마당'에 대한 비판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신문·잡지에 제기된 정원 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원의 기능과 조성목적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지로서 기능하였다. 둘째로, 도시위생을 향상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을 하였다. 셋째로, 주택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뜰'로써 정원의 역할도 강조되었다. 넷째로, 재래식 주택개량의 일환으로서 마당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정원 담론을 통해 당시 일반인들과 지식인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차후에는 당시 도상자료와 도면을 통해 공간에 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김미정(2009) 1920~30년대 대중매체를 통해 본 근대 주거문화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이정섭(2017)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1930년 부와 지정면 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2(1): 105-122.
3. 전봉희, 권용찬(2012) 한옥과 한국 주택의 역사. 동녘.
4.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2013)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